

# “U-20 월드컵 성공개최, 시민께 감사”

# 전주 승암마을, 생태터로 바뀐다

### 시, 새뜰마을 조성사업 국토부 최종 승인 걸쳐 내달부터 착수

### 김승수 전주시장 표명… “개막전에 경기장 가득 채운 관중들, 유치과정서 우려를 믿음으로 바뀌어”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 세계인들의 가슴속에 전주를 각인시킬 수 있도록 FIFA U-20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 내는데 적극 동참해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김 시장은 12일 FIFA U-20월드컵 코리아 2017 대회 23일간의 대장정을 모두 마무리하며, 대회 기간 가장 뜨거운 응원과 매진 등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성공개최를 이끈 전주 시민들의 열정에 감사를 전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전주 개막전을 시작으로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이번 FIFA U-20월드컵은 지난 11일 열린 결승전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김 시장은 이날 담화문에서 “지난 2015년 U-20월드컵 유치과정 당시 월드컵경기장은 전면 개보수가 시급했고, 훈련할 만한 연습경기장과 선수들이 묵을 호텔도 마땅치 않았다. 그 모든 핸디캡을 일거에 극복하고 개막전 개최라는 성과를 거둔 것은 전주 시민들의 뜨거운 열정이었다”며 대회 유치과정에서 성공 개최에 이르기까지 함께해준 모든 시민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했다.

특히 김 시장은 “5월 20일 개막전에 전주성을 가득 채운 3만8,000여 구름 관중은 유치 과정에서의 우려를 믿음과 신뢰로 바꾸어 놓았고, 최다 관중, 최고 열기로 전 세계에 전주를 깊이

각인시켰다”며 “이를 통해 전주는 다른 도시들의 경쟁상대가 아닌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회를 위해 전주월드컵경기장의 잔디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버금가게 교체됐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해상도 높은 전광판과 음향시설도 갖게 돼 앞으로 전주성을 찾는 전북현대 축구팬들에게는 큰 선물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전주시는 이번 대회를 성공리에 치러내기 위해 총 120억원을 투입해 전주월드컵경기장 그라운드와 전광판, 조명·음향시설, 선수대기실, VIP실, 주차장, 인도, 조경 등의 시설을 모두 정비했다.

나아가, 김 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는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며 “전주의 문화 브랜드 가치를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고, 전주는 ‘가장 아름다운 한국’이라는 문화도시의 명성에 가장 뜨거운 축구도시라는 날개를 하나 더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단언컨대 이번 U-20월드컵은 자랑스러운 ‘전주컵’이었다. 이번 U-20월드컵을 계기로 전 세계 수많은 축구팬들의 시선이 집중된 전주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에서 가장 글로벌한 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세계인들이 글로벌도시 전주를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노후주거지 밀집지역인 전주시 교동 승암마을이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희망의 생태터로 탈바꿈된다.

전주시는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간 실시해온 ‘승암 새뜰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국토부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승암새뜰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은 13일 국토교통부 검토위원회의 승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승암새뜰마을 조성사업의 비전을 ‘쾌적하고 편안한 희망의 생태터, 승암마을’로 정하고 생활환경 개선, 취약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4대 목표, 9개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생활환경 개선의 경우, 생활도로 개설과 버스 승강장 설치 등 가로체계를 정비하고, 마을광장과 쉼터, 공동텃밭 등 여가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취약환경 개선의 경우, 주민들은 LPG저장소 및 상하수도 정비 등 공급처리시설을 개선하고, 산림부 배수로 조성 및 사면보강, 화재예방시설 설치,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등 재해방지시설 보강에 나서기로 했다. /인재용 기자

또, 보안등 정비와 CCTV 설치 등 범죄예방시설도 확충된다.

주거환경 개선의 경우, 노후주택 정비와 슬레이트 지붕 철거 등 노후불량 주택을 정비하고, 폐·공기는 철거 또는 정비기로 했다.

끝으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의 경우, 공동 이용시설과 공동 생활홀 등 공동체 거점을 조성하고,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동체 역량도 키워나갈 방침이다.

시는 승암마을 주민들과 함께 수립해온 마스터플랜이 국토부 검토위원회에서 승인되면, 오는 7월 중 주민협의회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주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승암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마스터플랜이 순조롭게 마무리 돼 간다”며 “앞으로 주민주도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승암새뜰마을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16 도시 새뜰마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19년까지 국비 28억원 등 총 40억원을 투입해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집수리 지원, 주민역량강화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인재용 기자

##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시장단

### 지방행정연수원 방문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은 13일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부지사가 이끄는 오로미아주 시장단 일행 18명을 맞아 국내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사례를 공유한다.

에티오피아는 내각책임제 국가로 1인당 GDP는 619달러(2015년 기준)이며, 2개의 특별시와 9개의 주로 구성. 오로미아주는 가장 큰 주로 20개의 시로 구성, 27,158천명 인구가 거주하며 비효율적인 도시계획으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방문단은 지난 반세기동안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도시문제들을 해결해 낸 경험이 있는 한국을 벤치마킹 국가로 선택했다.

특히, 인적자원의 개발이 성공적인 국가발전과 변화에 중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연수원을 찾게 됐다. /김진성 기자



한스타일 전시관 개막식

우호결연도시인 중국 윈난성에서 한스타일 전시관 개막식이 열린 가운데, 김일재 행정부지사 가오쇼쑤 부성장에게 전북도 전시관을 둘러보며 설명했다.

## 학교로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전주시는 13일부터 28일까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인 관내 26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실시한다.

신규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년 이내에 발급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재용 기자

## 전주시, 우수 출판사 100여곳 유치 나서

### ‘독서대전’ 성공 개최 위해

전주시가 오는 9월 전주에서 열리는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우수 출판사 유치에 나선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7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해 대한민국 독서대

전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오는 9월 1일부터 3일간 한옥마을 경기전 일대에서 개최되는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적극 홍보하고, 성공개최를 위한 우수 출판사의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하는 370여개 출판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인문도시 전주에 가진 독서

인프라와 독서진흥정책을 적극 소개, 양질의 체험 프로그램과 저자를 보유한 우수한 출판사 100여개를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용자 완산도서관장은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은 전국의 13만 독서인과 출판 관계자들에게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지 전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9월 열리는 독서대전을 책의 도시 전주의 명성에 걸맞은 품격 높은 책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고급 외제차 반값에”… 11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 사기 혐의로… 15명 속여

1억원이 넘는 고급 외제차들을 반값에 구매준다는 15명을 속여 11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사기 혐의로 이모(48)씨와 허모(51)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들은 1억 5,000만원에 달하는 BMW 7시리즈 차량을 최모씨에게 7,000만원에 구매준다고 속여 가로챈 혐의를 비롯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명에게 총 1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허씨에게 4,0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을 2,000만원에 구매준 채 접촉했다.

허씨는 이씨가 고급자동차를 싸게 구매하는 것을 보고 지인들을 소개해주기 시작했다.

이후 허씨는 이씨의 행동에 이상한 감을 느꼈지만 지인 소개당 300만원 상당의 수고비를 받는 것에 입을 닫고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전과 29범으로 지난해 초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이씨는 범행을 시인하며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김민근 기자

## 전주시 차량등록과 민원실 새단장

전주시 차량등록과는 최상의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근 민원실을 새롭게 단장했다.

먼저 민원실의 약 30㎡ 면적을 차지하고 있던 자동차번호판 창구를 철거하고 민원인이 대기하는 공간을 넓혔다. 또한 자동차번호판 창구를 이전 창구 옆으로 옮겨 민원인이 자동차등록이전 절차 후 열 창구에서 곧바로 번호판을 수령해 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민원창구 시스템을 구축했다.

뿐만 아니라, 철거된 자동차번호판 교부 창구에는 민원안내석을 설치하고 직원을 배치해 직원이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차량등록 절차에 대해 설명하도록 했다. /인재용 기자

국재솔로시티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